

경제관계장관회의
24-23-2
(공개)

 역동경제로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

2024. 11. 14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서비스산업 글로벌 트렌드	1
II.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및 평가	3
III.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(“4+1”) ...	5
1. 서비스 新산업 육성	6
2.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육성	10
3. 서비스업 규모화·표준화 지원	13
4.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	16
5.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·고도화	20
IV. 향후 추진일정	22

I. 서비스산업 글로벌 트렌드

□ (기술기반 혁신) 서비스와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

○ 디지털기술이 물류·숙박 등 노동집약적 서비스와 결합하여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, 서비스산업 혁신 창출*

* 예) (물류+기술 : 뉴로) 도미노피자·월마트 등과 제휴해 자율주행 물류서비스 도입
(숙박+기술 : 사비오크) 메리어트·힐튼 등에 자율주행 로봇 호텔리어 파견

기술기반의 서비스업 혁신을 통한 성장률 제고 사례(미국)

▶ 미국의 경우, 9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혁신 서비스업*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창출하며 생산성이 크게 향상**

* 넷스케이프(세계 최초 상용 인터넷 브라우저 기업), 라이코스, e-Bay 등

** 美 잠재성장률(% , 미 의회예산처) : ('90~'95년) 2.5 → ('96~'01년) 3.8

□ (서비스 수출입) 기술 발달 등으로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

○ 디지털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* 되며 서비스의 교역재적 성격 및 서비스 교역의 중요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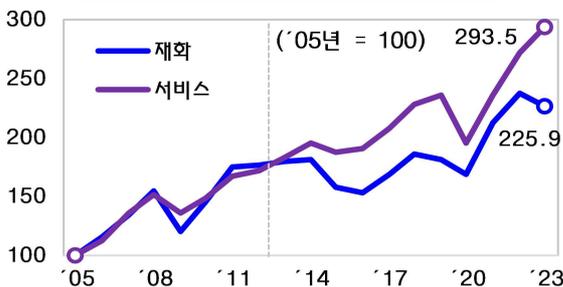
* 예) (과거)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(컴퓨터 등)에 탑재되어 물리적 이동(제조업 교역)
→ (현재) 물리적 매개 없이 클라우드·플랫폼 기반으로 수출입(서비스 교역)

** Economist('24.7월)는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클라우드 기반 원격 서비스 등 '거래 가능한 서비스'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

▪ 연구개발, 통신·컴퓨터·정보서비스 등 기술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며 상품 교역 증가세 상회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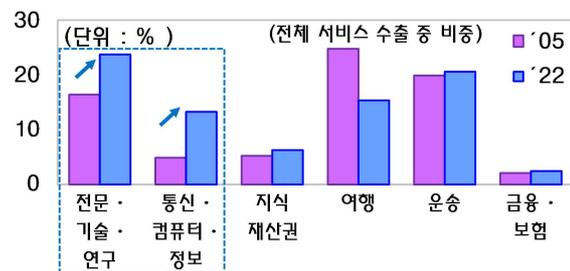
* '13~'23년 글로벌 재화·서비스 연평균 수출 증가율(WTO) : 서비스 4.9% > 재화 2.3%

글로벌 재화·서비스 수출 추이



* 출처 : 세계무역기구(WTO)

주요 서비스 업종별 교역 비중



* 출처 : 국제무역위원회(IT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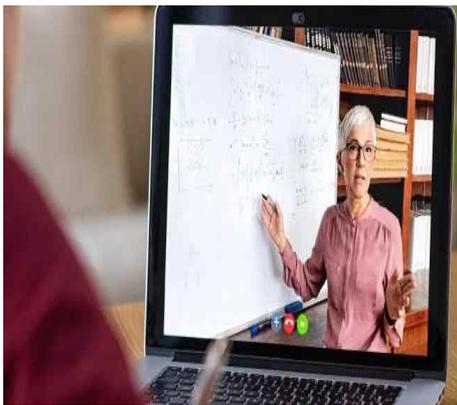
[참고] 기술기반 서비스업 혁신 사례



뉴로(Nuro)		물류 + 기술
설립일	'16.9월	
<p>▶ 자율주행로봇 "R2"를 이용한 물류 서비스* 도입</p> <p>* 뉴로와 제휴를 맺은 소매점에서 고객이 물품을 구매한 뒤 무인차량 배송을 선택하면 자율주행로봇이 물품 배송</p> <p>- 도미노피자, 월마트, CVS(대형 약국 체인), 세븐일레븐 등과 제휴를 통해 식품·의약품 배송</p> <p>- 포브스(Forbes) 선정 '20년 AI 50대 기업</p>		



사비오크(Savioke)		숙박(호텔) + 기술
설립일	'13.8월	
<p>▶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호텔리어* 개발·공급</p> <p>* 장애물 인지,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여 손님 응대, 객실 안내, 룸서비스 제공 등 수행</p> <p>- 구글, 인텔 등으로부터 약 3,400만 달러 투자유치</p> <p>- 메리어트·힐튼 등 80여개 호텔 체인에 공급</p>		



에메리투스(Emeritus)		교육 + 기술
설립일	'15.8월	
<p>▶ 데이터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* 운영</p> <p>* 경력 향상, 재교육 등을 희망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단기교육, 인증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 제공</p> <p>- MIT·하버드 등 전세계 60여개 명문대 제휴</p> <p>- 타임지(The Times) 선정 '24년 에듀테크 1위 기업</p>		



리-업(Re-up)		음식(푸드) + 기술
설립일	'23.2월	
<p>▶ 인공지능 기반 로봇 튀김기*(The Wingman) 도입</p> <p>* 닭날개를 전문으로 다루는 로봇으로, AI 기술을 활용해 근로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동</p> <p>- '24.4월 기준, 美 9개 지역 배치 → 추후 확대</p>		

II.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및 평가

□ [현황] 혁신 지연으로 ①경제의 서비스화 정체 + ②서비스 수출 부진

- 기술-서비스 융·복합을 통한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낮고*, 경제의 서비스화도 60% 초반대에서 정체**

* 서비스산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(만 달러, '21년): (韓) 6.6 (美) 12.8 (佛) 8.6 (獨)7.6

**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(% , 전산업 대비) : ('10년) 60.1 → ('23년) 63.0

- 제조업 대비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저조*하고, 주요국 대비 총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이 낮은 모습**

* 상품·서비스 수출 순위(WTO, '23년) : (상품) 8위 / (서비스) 18위

** 총수출 중 서비스 수출 비중(% , WTO, '22년) : (韓) 16.0 (세계) 22.3 (英) 48.1 (美) 31.0

□ [신산업] 진입장벽 등으로 혁신기술 서비스 新산업 활성화 지연

- 주요국은 서비스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 중이나, 우리는 진입장벽 등으로 혁신기술 서비스 신산업 활성화 지연*

* '23년말 기준, 미국은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혁신기술 서비스기업이 5개(S&P 500 기준)인 반면, 우리의 경우 2개(KOSPI 200 기준)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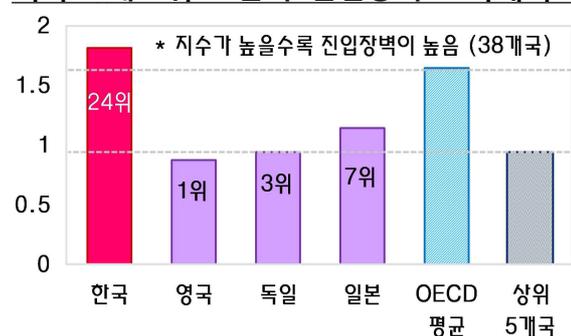
- 제도적 갈등조정체계 미비로 서비스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(신·구 사업자 등) 간 갈등 조정에 애로

시총 10대 기업 중 혁신기술 서비스기업

S&P 500	KOSPI 200
Apple	삼성전자
Microsoft	SK 하이닉스
Amazon	LG 에너지솔루션
NVIDIA	현대차
Alphabet-A (Google)	삼성바이오로직스
Tesla	카카오
Meta (Facebook)	네이버
Alphabet-C (Google)	삼성 SDI
Berkshire Hathaway	포스코
United Health Group	KB 금융지주

* 출처 : S&P, 한국거래소

서비스·네트워크 분야 진입용이도 국제비교



* 출처 : OECD PMR('23년)

□ (제조업 연계) 제조 중간재 역할 미흡 + 제조업 디지털화 저조

○ 서비스산업의 제조 전·후방 중간재로서 역할*이 미흡**하고, 유지·보수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도 부진

* R&D-제조-유통-마케팅 등 제조 가치사슬에서 제조 전·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**스마일 커브(Smile curve)** 현상에 따라 제조 중간재로서 서비스 중요성 확대

** 자동차 산업 등 주력 제조업 공급망 내 서비스 중간재 역량 강화 필요(한은, '24년)

○ 디지털기술·인공지능(AI) 기반 서비스 등을 활용해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는 **제조업 디지털·서비스화도 저조***

* 국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준비도는 5점 만점 중 1.2점에 불과(산업연, '19년)



* 출처 : 삼성 KPMG 등

제조업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비중 국제비교



* 출처 : 한국무역협회

□ (규모) 디지털기술 접목 등을 통한 규모화·표준화 지연

○ 음식·소매 등 소비자 서비스업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편*

* 사업체당 종사자 수(명, '22년, 서비스업 조사) : (음식) 2.7 (소매) 2.0 (전체 서비스) 3.4

○ 일부 업종에서 디지털기술 접목 등을 통한 **규모화*·표준화가 진행****되고 있으나, 대부분 업종은 규모의 경제 실현 부진

*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'점포 수 확대', '해외진출' 등

** 예) 숙박 플랫폼 Y 업체, 클라우드 기반으로 자산관리·객실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Travel tech 기업으로 성장(190여개국에 클라우드 솔루션 수출)

▪ 중소 서비스기업은 규모화 등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, 규모화 추진을 저해하는 제도도 상존

Ⅲ.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[“4+1” 전략]

비전

서비스산업의 **성장동력화** 및 **서비스경제 전환** 촉진

목표

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'35년 70% 수준으로 제고

*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(전산업 대비)
: ('23년) 63.0% → ('35년) 70% 수준

4
대
과
제

① 서비스 신산업 육성

- ✓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기업 도약 지원
- ✓ 데이터 성장기반 마련, 거래·유통 활성화
- ✓ 자율주행 다변화 등 모빌리티 혁신 지원

②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육성

- ✓ 방산·원전 등 주력 제조업 MRO 시장 육성
- ✓ 제조과정 전반 서비스 투입 확대
- ✓ 제조-서비스 융합 BM 확산 기반 마련

③ 서비스업 규모화·표준화 지원

- ✓ 고품질 숙박시설 공급 확대
- ✓ 장기요양기관 공급 확대 및 규모화
- ✓ 표준모델 개발 등 사회서비스 품질향상

④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

- ✓ 향후 5년간('25~'29년) 66조원 규모의 (역대 최대 수준) 수출금융 지원
- ✓ 다자개발은행(MDB) 조달, ODA 연계 등 서비스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⑤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·고도화

서비스 전문인력 육성

- ✓ ICT·SW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확대
- ✓ 산업 융·복합 트렌드에 대응한 융합형 인재 양성
- ✓ 서비스 전문인력 지역육성 과정 신설 및 인력난 해소 지원

서비스 R&D 고도화

- ✓ R&D 사례 보완 등 「서비스 R&D 가이드라인」 개선
- ✓ 서비스 혁신을 위한 민간 서비스 R&D 투자 촉진

1. 서비스 新산업 육성

[1]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업 육성

◇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기업 도약(Jump-up)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

□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기업 등의 스케일업(Scale-up) 지원을 위해 「유망 중소기업 도약(Jump-up) 프로그램*」 참여 지원 중기부

* 스케일업 의지가 크고 성장성·기술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개社(25년) 선정

유망 중소기업 도약(Jump-up) 프로그램 주요내용

(1)	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
디렉팅	▶ 디렉터·서포터 매칭 → 전략·BM 수립 등 전(全)주기 맞춤형 지원
바우처	▶ 오픈형 바우처* 신설 → 스케일업 도전 마중물 제공 * 매년 2.5억원, 3년간 최대 7.5억원 지급(사업화 비용의 70% 지원)
(2)	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범부처 정책 패키지 지원
금융지원	▶ 금융 패키지 지원을 통한 대규모 자금 확보 지원 * 최대 200억원 한도 특례보증(기보), '스케일업·중견도약 펀드' 투자 포함
연계지원	▶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진출 연계 지원

① 테크(tech) 서비스, ICT,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유망 서비스기업의 스케일업 지원

② 지원기업 선발 시, 서비스산업 고유 특성*을 고려하여 평가

* (i) 제조·상품으로의 전·후방 유발효과 등 중간재로서의 역할, (ii) 직영·위탁·가맹 등 점포 확대를 통한 규모화(인력·시설·매출·영업이익 증가), (iii) 다른 산업·업종과의 융·복합 용이성, (iv) 노동집약적 영역에 기술 결합을 통한 생산성 혁신 창출 가능성

③ 민간 투자사(벤처캐피탈, 사모펀드 등) 등의 추천을 받은 서비스 기업에 패스트트랙(1차 평가 통과 등) 적용

□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(금리·한도·보증 우대)를 위해 「혁신성장 공동기준*」에 테크 서비스** 분야 반영 검토 금융위

* 혁신산업 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기술·산업트렌드 등을 포괄하여 마련된 기준

** 특정 산업분야에 기술(테크)이 결합되어 생산성·효율성이 향상된 서비스 모델 (예: 푸드테크(food-tech), 트래블테크(travel-tech), 프롭테크(property+tech) 등)

[2] 데이터 산업 활성화

◇ 데이터 산업 성장기반 마련, 데이터 거래·유통 활성화 적극 추진

□ 의료·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, 신기술 개발 등 성장기반 마련

- **(마이데이터*)** 의료·통신 분야(‘25년)를 우선으로, 전(全)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,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추진 개보위·과기부
 - * 개인(정보주체)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거나, 정보 보유기관 등(정보전송자)으로 하여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 등(정보수신자)에게 정보를 전송하게 하는 제도
 - **의료·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***(시행령, 고시) 마련 추진(~’24.12월) 개보위
 - * 정보전송자, 정보수신자, 전송대상 정보,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
 - **의료 마이데이터를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활용***하는 실증 서비스 제공(’24.12월~) 과기·복지부
 - * 비대면 진료 시, 환자 동의 하에 진료기록·투약정보·건강검진 결과·접종이력 등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사에게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 - **정보주체를 개인→기업(법인)까지 확대***하여 소상공인·中企 등이 보유한 기업정보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** **발굴·실증** 과기부
 - * (現)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는 개인으로 한정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)
 - ** 예) 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기업정보(예: 매출·영업이익·고객정보 등)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에 전송하여 활용
 - **부문·분야별 전송대상, 전송규격(API)·기술요소 등 마이데이터 표준 수립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**(~’25년) 개보위
 -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획·사업화 수요가 있는 데이터 보유기관 및 활용기업 대상으로 **1:1 맞춤형 컨설팅*** 지원 과기부
 - * ①법·제도 진단, ②환경분석, ③세부 실행전략 마련, ④벤치마킹 사례 제공 등
- **(신기술 개발)**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(PET)* 연구개발 지원 개보위
 - * **Privacy Enhancing Technology** : 가명·익명처리 기술,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

□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거래·유통 활성화

- (인프라 구축) 민·관에 산재된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한 수요-공급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'One-윈도우*' 구축('25년~) 과기부

* ①사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검색 기능, ②데이터 산업 정책정보, ③가치분석 모델·가치평가 등 데이터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인프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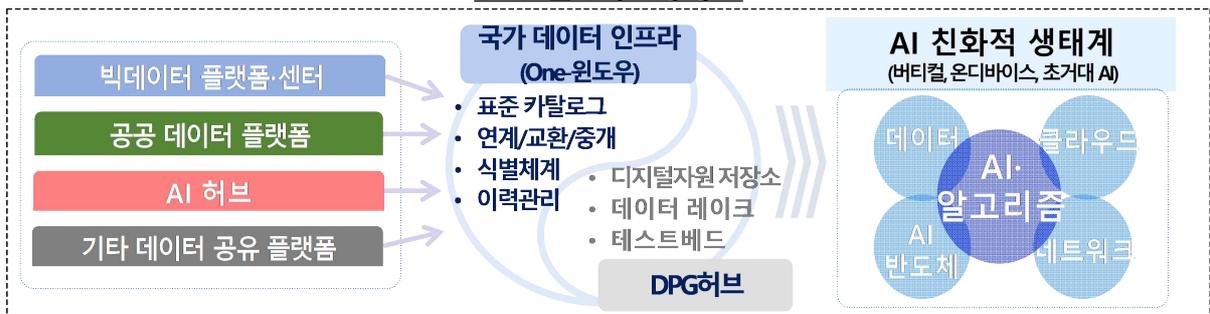
■ AI 기업 : AI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가 필요하고, 데이터 가공·유통 과정에서 품질인증 등 공신력 있는 제도 필요

- 유통·거래에 필요한 데이터의 소유·구성·유통·품질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 카탈로그 정의·배포('25년~)
- 데이터 제공자·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, 데이터 식별체계*·이력관리, 데이터 표준계약서** 등 유통·거래기준 제공

* 국제표준 기반의 데이터 세트(data set)에 부여하는 고유코드 및 관리체계

** 데이터 이용범위, 제공방법, 거래대가 및 이익분배, 이용자 책임 등 규정

One-윈도우 체계도



- (고품질 데이터) 데이터 전(全) 주기(생산-유통·거래-활용)에 걸쳐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*·가치평가 등 활성화 과기부

* 데이터의 정확성·보안성·유용성 등을 종합평가·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
- 품질인증 대상을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 (영상, 이미지 등) 및 데이터 관리체계(조직, 프로세스 등)까지 확대
-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가치평가 비용 지원 및 데이터 특화 세부 평가기법 개발 등을 통한 가치평가 제도 고도화

[3] 모빌리티 산업 혁신

◇ 자율주행 서비스 다변화, 도심항공교통(UAM) 상용화 준비 등

□ 자율주행 서비스 다변화 및 개발 인프라·안전기준 개선^{국토부}

- (서비스 다변화)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의 단거리·여객 중심에서 장거리·광역·화물 등으로 다변화*
* 광역노선(고속도로 등) 지정 근거 및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 既 마련('24.7월)
- (인프라 고도화) K-City* 3단계 고도화(~'25년)를 통해 시험로 확장, 정밀주행환경(입체교차로 등) 등 Lv.4+ 자율차 실험 인프라 구축
*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화성에 조성(36만㎡ 규모)된 자율주행 실험도시
- (안전기준 개선) Lv.3* 자율차 안전기준 개선(승용 → 전(全) 차종으로 확대 등) 및 Lv.4**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
* 시스템 요청시(비상시)에만 운전 개입 / ** 특정구역 내에서는 운전자 개입 불필요

□ 도심항공교통(UAM) 수도권 실증 등 UAM 상용화 준비^{국토부}

- (실증·시범사업) UAM 수도권 실증*(인프라 구축 후 실증비행) 및 UAM 시범사업 지자체 사전준비 지원**('25년 2개소)
* 기체·통신체계 안전성 확인, 운행 데이터 확보, 실시간 데이터 처리체계 구축 등
** 버티포트(이착륙장) 입지 및 회랑(노선) 분석·설계, 교통량·전파환경 분석 등 지원
- (규제개선) UAM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* 구체화(~'24.12월)
* 「항공안전법」 등에 규정된 기체 등록, 이착륙 장소 제한, 비행제한 등 완화 적용

[4] 신산업 진입 촉진

◇ 서비스 신산업 기획형 샌드박스 추진 + 갈등조정체계 구축

- (샌드박스) 서비스 신산업 분야 기획형 샌드박스* 과제 발굴·추진^{국조실 등}
* 규제개선 효과가 큰 사업을 부처가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샌드박스
- (갈등조정) 서비스 新산업 육성을 위한 갈등조정체계 마련^{기재부}
* 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」을 제정하여,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·운영

2.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육성

[1] 주력 제조업 MRO* 시장 육성

* **M**aintenance, **R**epair and **O**verhaul : 유지·관리, 보수, 완전분해 점검·수리

◇ K-방산 MRO 육성계획 수립, K-원전 서비스 수출지원 등 추진

- (방산) K-방산 MRO 육성계획* 수립('25년) **방사청, 국방부**
 - * 해외시장 개척 지원, R&D 지원, 인프라 투자 등
- (원전) 원전 정비·유지보수 등 원전 서비스 수출지원* **산업부**
 - * 국내·외 인증 취득, 벤더 등록, 바이어 초청, 전시·상담회, 수출보증 등
- (조선) 선박관리산업* 육성 기본계획** 수립('24.11월) **해수부** 및 **산업부**
 - * 선원관리, 선박운항·수리, 회계관리, 금융·보험 등을 제공하는 해운 서비스산업
 - ** ①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 운영, ②전문인력 육성, ③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
- (항공) 고부가 항공정비산업 성장촉진 지원*('24.下~) **국토부**
 - * ①해외 외주정비 국내 유턴 지원, ②해외 MRO 기업·물량 유치 확대, ③차세대 엔진정비 등 기술개발 지원, ④국산부품 상용화를 위한 인증기반 확대 등

[2] 제조과정 전반 서비스 투입 확대

◇ 제조기업 디지털·인공지능 활용 지원 + R&D·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 확대

- (제조DX·AX) 제조기업의 디지털(DX)·인공지능(AI) 기술 활용 지원
 - 중소·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(DX) 전략 수립·실행* 지원 **산업부**
 - * ('24년) 17.9억원 → ('25년 안) 75.2억원
 - 지역특화 제조 AI센터 확대('24년, 1개소 → '25년 안, 3개소) **중기부**
 - 표준산업분류체계에 스마트제조 관련 제품·서비스 특수분류를 추가하고, 품목별 기술로드맵 수립('25.下~) **중기부, 통계청**

- (전·후방 서비스) 제조과정 전·후방 단계에 서비스 투입 확대
 - (연구개발) 혁신도전 분야*, 지역혁신** 등 민간 R&D 투자가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R&D 지원 강화 **산업·중기부**
 - * 산업 알키미스트(신기술·경쟁형) : ('24년) 282억원 → ('25년 안) 481억원
 - **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&D 지원 : ('25년 안) 216억원(신규)
 - (디자인) 디자인-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, 디자인 주도 제조기업 혁신 등을 통해 우수상품 개발 촉진 **산업부**
 - (지식재산) 특허 데이터와 R&D를 연계한 핵심특허 선점 및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 확대* **특허청**
 - * ('24년) 588억원 → ('25년 안) 618억원
 - (마케팅) 수출바우처*·해외전시회** 등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**산업부**
 - * ('24년) 566억원 → ('25년 안) 616억원 / ** ('24년) 393억원 → ('25년 안) 409억원
 - (법률) 신산업 분야(27개) 스타트업 법률자문지원사업('25년 신규, 18억원) 등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개선 **중기부**

[3] 제조-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 확산 기반 마련

◇ SW 융합 디지털 서비스 개발,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지원 등

- (SW 융합 촉진) 전(全)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(SW)와 융합한 디지털 서비스(XaaS)* 기획·개발 지원 **과기부**
 - * X(특정산업) + as a Service : 제품·기술·프로세스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('25년 안, 14개 과제 기획·개발 및 실증·지원, 66.8억원)

제조-SW융합 디지털 서비스화 사례

스마트 병원 로봇 운영 서비스 (RaaS : Robot as a Service in smart hospital)	AI 기반 신발 디자인 제조 서비스 (MaaS : Manufacturing as a Service)
	
<p>▶ 클라우드 기반으로 로봇을 제어·관제하고, 병원에 최적화된 운영 서비스를 제공</p>	<p>▶ 신발 제조에 특화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 신발 디자인 제작을 지원</p>

- **(M&A 지원)** 기술보증기금 내 M&A 종합플랫폼을 구성하여 서비스 BM 보유기업과 제조기업 합병 등 지원 강화('25.上~) 중기부
- **(규제개선)**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·생체정보를 활용한 융·복합 서비스 개발 촉진 개보위
 -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* 마련('25.上)
 - * 생체정보 관련 개념 정의 명확화, 생체정보 처리원칙 마련, 처리요건 합리화 등
 - 자율주행 기술개발·고도화를 위해,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*('25.上~)
 - * '23.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등을 활용한 영상촬영 근거는 既 마련되었으나, 현재는 비식별조치 후 활용 가능(現 4개 기업 실증특례 실시 중)
- **(인증제도)** 고객맞춤형 제조 서비스(On-Demand Service)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 산업부
 -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, 자기적합선언*(DoC) 인증대상 품목 확대('25.下) 등 안전성 검증방식 다양화
 - * **Declare of Conformity** : 지정된 시험기관을 통한 인증 외에,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 등이 기준이나 규격에 적합하다고 선언하고, 안정성 등을 책임지는 사전인증 방식
- **(제조 서비스 플랫폼*)** 제품 기획·판매 전문 서비스기업이 위탁 제조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산업부
 - * 제조기반이 없는 서비스기업 등과 위탁 제조기업이 매칭되는 온라인 플랫폼
 - 디자인 고관여 상품* 개발기업의 민간 주문제조 플랫폼** 활용 지원 확대('25년 안, 40여개社, 기업당 2,500만원 내외 지원)
 - * 디자인이 제품 구매에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제품군(가전, 의류 등)
 - ** 아이디어(디자인 등) 보유기업과 생산 전문기업 등을 매칭시켜 시제품 제작 지원
 - 전문 디자인기업, 위탁제조 전문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'지역 디자인 통합플랫폼' 고도화* 및 확산 추진
 - * 위탁제조 전문기업 풀 확대 및 분류체계 보완(디자인 분야별 → 전문 제조 분야별), '아이디어 보유자 - 전문 디자인기업 - 위탁제조 전문기업' 등 3자간 연계 지원 등

3. 서비스업 규모화·표준화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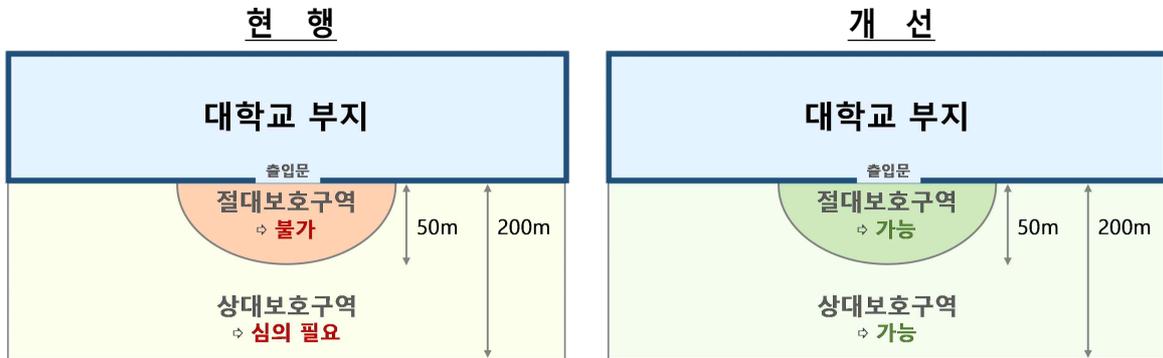
[1] 숙박 서비스

※ 지역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, 서비스 품질 차이가 크고 소비자 탐색비용 과다

◇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, 고품질 숙박시설 관련 우대금융 제공 등

- (제도개선)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·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 합리화* 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, ~'25년) 교육·문체부

* (現)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50m 이내는 건축 불가, 50~200m 이내는 심의 필요
 → (改) 대학교 인근의 유해성이 적은 관광호텔 등(예: 100실 이상 운영, 공용공간을 개방형으로 설치, 유흥주점·사행행위장 미운영 등)은 예외 적용



- (자금지원) 고품질 숙박시설 확대를 위해 우대금융 등 제공 금융위 등

- (대형 호텔) 신축·리모델링 등 브랜드 호텔 공급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('25~'29년) 2.5조원 규모 우대금융 제공*

* 서비스산업 지원자금(산은) : (한도) 시설 1,000억원 / 운영 500억원 (금리 우대) 최대 △0.5%p

- (중소형 호텔) 기존 숙박시설(모텔 등)을 활용한 직영·위탁점 확대를 위해 시설인수·증축·리모델링 등 정책자금 지원

- (생활형 숙박시설) 중소형 위탁운영사*에 정책자금 지원**

*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체

** 예) 수수료, 임대차 비용 등 운전자금 용자

- (공유숙박) 농어촌민박·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('24.12월~) 농식품·문체부

- **(숙박업 관리체계)** 다수 부처·법률에 산재*된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「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」 마련 기재·문체·복지·농식품부 등
 - * 관광진흥법(문체부), 공중위생관리법(복지부), 농어촌정비법(농식품부) 등
 - 관계부처 합동 '숙박업 제도개선 TF'를 운영('24.12월~)하고,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추진('25.下)
- **(공급 확대)** 대규모 관광호텔·리조트 건설 관련 인·허가, 입지 규제 등 투자애로 발굴 및 신속한 애로해소 지원 기재·문체부 등

[2] 노인 복지 서비스

※ 고령화 등으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나, 시장이 분절적이고 정보량 부족

◇ 도심지 인근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 및 장기요양기관 규모화 지원

- **(공급 확대)** 도심지 인근* 폐교 부지 및 국·공유 유휴부지를 활용**한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 교육·기재·행안부, 지자체
 - * 부양자(자녀 등)가 주로 거주하는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건설수요가 높으나, 도심지 인근에는 요양시설로 활용 가능한 민간부지 부족
 - **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상 대부 특례(제5조)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상 국·공유재산 우선매각 규정(제42조의2) 적극 활용
- **(제도개선)** 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 관련 제도개선 추진
 - 시설이용 수요 대비 공급부족 지역 등의 설치기준 개선 검토 복지부
 - 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* 검토('25년) 복지부
 - * 자율성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新노년층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추가비용 지불의사가 있으나 현재는 ①식사재료비, ②상급침실료, ③이·미용비에 한정
 - 수급자의 필요·선호를 반영하여, 다양한 재가급여(요양·간호·목욕·주야간보호 등)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복지부
 - * (現) 재가 수급자의 78.8%가 단일급여 이용('23년) → (改) 1기관-다종급여 제공 (인력·시설·운영 관련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개정(~'24.12월))

[3] 사회서비스

※ 소규모 업체 중심의 시장구조로 분절적 서비스 제공, 공급기관별 품질 차이 존재

◇ 표준 공유화 모델 개발, 가격탄력제 도입 등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

- **(표준모델 개발)**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사회서비스가 보장되도록 사회서비스 분야 **표준 공유화 모델 개발***(‘24년)·**확산**(‘25년~) **복지부**
- *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(‘23년~, 2개소)을 공모·선정해 공유화 기반 조성 등 지원 → 사회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표준 공유화 모델 개발
- **(가격탄력제 도입)**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는 ‘가격 탄력제’ **시범운영***(‘24년)·**확산 검토**(‘25년~) **복지부**
- *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대상으로 시범적용 →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조건(국가자격증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+실무경력 1년 이상 등)으로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
- **(금융·투자지원)** 투자유치 역량교육 강화 및 투자사 연계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성장 지원방안 마련(‘25년) **복지부**

[4] 차량 대여 서비스

※ 지역관광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, 소비자 탐색비용이 높고 수요자 만족도 저조

- **중소형 렌터카 업체들이 영업소·정비망 공유 등을 통해 공동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운수협정 활성화*** **국토부**
- *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타 업체의 영업소·차고지 사용 허용, 신속한 정비 등 중소형 렌터카 업체의 서비스 품질 개선

[5] 외식 서비스

※ 대형 브랜드 중심으로 표준화 수준이 높고, 한류 확산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유망

- 유망 외식 브랜드 중심으로 현지 **수출 박람회 참가*** 및 해외 바이어 연계 확대 등 해외진출 적극 지원 **농식품·산업부**
- * 개최국가 및 참여기업 수 : (‘24년) 4개국, 24개 → (‘25년 안) 6개국, 48개

◇ **민·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(기재부 1차관, 민간전문가 공동팀장)를 통해 추가업종 발굴, 진행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·홍보 추진**

4.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

[1] 서비스 수출금융 확대

◇ 역대 최대 수준 수출금융 + 수출 중소기업 대상 금융·보증지원 확대

□ [정책금융] 66조원 규모 역대 최대 수준의 수출금융 지원

- 주요 서비스 분야 대상으로 향후 5년간('25~'29년) 약 66조원 규모(역대 최대 수준)의 수출금융 지원 수은·무보·산은·기보·신보·중진공

서비스 수출금융 주요지원 계획(예시)

기관	주요지원 계획
수출입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판매 콘텐츠 제작·유통기업 대상 수출촉진자금 대출 · 서비스 수출기업에 금리·보증료 우대 및 한도 확대
무역보증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 보증료 할인(20%), 보증비율 상향(90 → 95%) · 서비스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실적 인증부담 완화
기술보증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보증료 감면(최대 △0.4%p) 및 보증비율 우대(최대 95%) · 서비스 수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모형 개발·시행('25년)

□ [금융·보증]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 대상 금융·보증지원 확대

- (예비 수출기업 지원) 예비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가와 연계한 금융지원 제공 기은
 - 해외박람회 등에 중소 프랜차이즈 전용 공동 홍보관 개설 및 박람회 소요비용 관련 우대금융* 제공('25.1월~)
 - * 금리우대 규모·한도 등 구체적 지원계획 연내(~'24.12월) 마련
- (보증 확대) 완성보증 대상 확대*(콘텐츠 제작 → 콘텐츠 기획·개발·제작·유통·해외수출)로 중소 콘텐츠 기업의 수출 촉진 문체부·신기보·무보
 - * 보증제도 명칭 변경(문화산업완성보증→문화산업보증), 보증기관에 무역보험공사 추가

[2] 서비스 수출기업 해외진출 지원

◇ 서비스기업 대상 특화제도 마련, MDB·ODA 연계 해외진출 등

□ [수출지원 사업 고도화] 수출바우처 확대, 현지 지원 고도화

○ (수출바우처 확대) 서비스업 특화 지원 메뉴 개발 산업부·중기부

-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하여, 테크 서비스기업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* 제공('25년 안, 140억원)

* 클라우드·공동데이터센터 활용, SW 현지화, UI·UX 디자인 개선 등



현장의 목소리

- **테크 서비스기업 A社** : 테크 서비스기업 특성상 클라우드 활용, SW 현지화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수출바우처 내 관련 항목이 없어 활용에 제약

- 잠재적 바이어 대상으로 수출 서비스 시연·실증을 대행하는 '현지실증 지원 메뉴*' 신규 개발('25년~, 에듀테크 우선 지원**)

* 협력기업이 현지 AC·에이전시·공공기관과 함께 잠재적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서비스의 시연·실증을 대행하고, 수출바우처를 통해 협력기업에 비용을 정산

** 에듀테크 분야 지원 성과를 토대로 R&D 등 지원 분야 확대 추진



현장의 목소리

- **스타트업 B社** : 기업경영 솔루션 등 B2B 서비스는 상품과 달리 시제품을 통해 현지 반응을 조사하기 어려워, 현지 서비스 실증에 대한 지원 필요

○ (현지 지원 고도화) 서비스 현지화, 투자유치·판로개척 등을 위한 현지 AC(엑셀러레이터)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확대*('25.上) 중기부

* (現) 현지 AC(엑셀러레이터) 네트워크 8개社 → (改) 10개社

○ (판로확보 지원) 서비스기업 전용 온라인 판촉 채널 고도화 및 중소·중견 서비스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기회 확대

- 바이코리아(buyKorea)* 내 '서비스 전용관'을 별도 페이지로 구축하여 온라인 판촉 및 수출계약 체결 적극 지원 산업부

* 해외 바이어 대상 상품홍보 및 비즈(Biz) 매칭을 제공하는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

** 예) 서비스 품목 카테고리를 표준화하여 바이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, 온라인 구매 기능 및 통계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무역업무 지원

□ (해외진출) MDB 조달, 국제 교류사업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

- (MDB 사업 진출) 조달설명회 개최, 신탁기금사업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서비스기업 등의 MDB* 조달시장** 진출 지원 기재부

* **M**ultilateral **D**evelopment **B**ank : 다자개발은행

** WB·ADB·EBRD 등 6개 MDB 조달시장 규모는 '23년 기준 441억 달러 규모이나, 우리나라 실적은 2.9억 달러(점유율 0.66%)에 불과



현장의 목소리

■ 서비스 수출기업 H社 : MDB 조달시장 진입에 관심이 있으나, 개별기업 차원에서 기금사업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, 조달 참여방법도 알기 어려움

- MDB 조달설명회*를 통해 ①신탁기금사업 홍보, ②MDB 및 해외발주처 1:1 상담, ③MDB 조달 가이드북 발간·제공

* '24.11.26~27, 서울 JW 매리어트호텔, WB·ADB 등 6개 MDB 참석 예정

- 기업들이 MDB 신탁기금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탁기금 및 기재부 국제금융기구 홈페이지*를 통해 공개('25년)

*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: ifi.moef.go.kr

- (ODA 연계)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

- 글로벌 ODA 기업진출센터*(KOICA)를 통한 서비스기업의 ODA 입찰 참여 등 지원 외교부

* ①ODA 입찰정보 제공, ②1:1 컨설팅, ③입찰 제안서 작성 지원 등 수행

- ICT 대기관리 시스템 구축 등 그린 ODA 사업*과 연계한 국내 환경기업의 환경관리 소프트웨어(SW) 해외진출 지원 환경부

* ('24년) 4개 사업, 128억원 → ('25년 안) 5개 사업, 183억원

** 예) ICT 대기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몽골에 대기오염 경보 솔루션 수출

- 산후조리 환경이 열악한 개도국 대상으로,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을 위한 지식공유(KSP)* 추진(~'26.上) 기재부·관계부처

* 산후조리 관련 인력양성 및 문화형성 관련 주제로 부처제안 사업 또는 민간제안 사업(KOTRA)으로 발굴 유도(베트남, 인도네시아, 미얀마, 우즈벡 등)

- 한국형 산후조리 모델의 해외진출 여건 조성*('25년~) 복지부
- * 몽골·베트남 등 협력국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(산후조리도우미) 도입 컨설팅 등 제공
- 교육용 기자재 제공, 에듀테크 활용 연수 등 교육 ODA 사업을 연계·종합*하여 개도국에 K-에듀테크 진출 기반 마련('24년~) 교육부
- * (現) 개발도상국에 기자재 제공, 에듀테크 활용 연수 등을 분절적으로 지원 → (改) 교사·교육정책가 연수, 디지털기술 도입 등을 연계, 종합 패키지형으로 지원

□ (무역장벽 대응) WTO 규범 활용 지원,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

- 「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」('24.5월 국내 발효) 활용 지원 산업부
- * 참가국(72개국)들이 동 국제규범을 자국 법제에 반영 시, 서비스 교역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

[참고] WTO 「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」 주요내용('21.12월 제정)

- ▶ (합의내용) 72개 참가국이 개방한 서비스 업종에서의 면허·자격취득 절차 등이 규제화·무역장벽화되지 않도록 국제규범 마련 및 국내법제 반영에 합의
- ▶ (규범내용) ①면허·자격취득의 요건·절차 사전공개, ②요건·절차 신설·변경시 의견개선 기회제공, ③승인신청에 대해 과도한 지체없이 처리, ④문의처 설립, ⑤승인기관 독립성 등

- 국가·산업별 교역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구체적 사례조사를 실시(~'25.上)하고, 설명자료 배포 및 기업 설명회 개최('25.下)

- 서비스산업 분야 무역기술장벽(TBT)* 대응 지원 산업부

- * **T**echnical **B**arriers to **T**rade :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정·표준·인증 등
- 미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MEGA TBT 포럼*에 개인정보·사이버보안·인공지능 등 유망 서비스 분야 추가('25년)
- * 해외 기술규제 도입이 예상되는 신기술·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, 산학연이 해외 동향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수집·분석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포럼
- 서비스 수출기업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(KNOW TBT)*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교육 제공
- * 해외 기술규제 관련 정보제공, 수출기업 대상 규제상담 및 애로대응 등 수행

5.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·고도화

[1]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

◇ 고부가가치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확대, 미래 융합형 인재 육성 등

□ ICT·SW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전문인력 양성 확대

- (직업훈련 확대) 한국폴리텍 하이테크 과정* 직업훈련** 및 ICT·SW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교육과정 확대 고용부

* 대졸 미취업자 대상 유망·선도 분야 인력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정

** ('24년) 91개 과정, 2,030명 → ('25년 안) 109개 과정, 2,430명

- (맞춤형 인재양성)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폴리텍-서비스기업 간 연계* 확대 고용부

* 폴리텍 대학과 서비스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여,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, 협약기업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폴리텍 졸업생 채용에 협력

□ 산업간 융·복합 트렌드에 대응한 미래 융합형 인재 육성

- (융합인재 육성) 전공자율선택제* 현장 안착 지속 추진 교육부

* 전공자율선택제 중점 추진 대학(73개 국립대·수도권대), '25년 3.7만명 모집 계획

- 전공 설계 및 진로탐색 지원 확대, 별도 융합교육 강화, 학생자율설계 전공* 확산 등 추진

* 복수학과 간 융합을 토대로 교과과정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전공

□ 서비스 전문인력 지역육성 과정 신설 및 인력난 해소 지원

- (교육과정 운영) RISE* 내 지역 취·창업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산업 분야 교육과정 운영 자문·지원('24.12월~) 지자체, 교육부

* 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 :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, 지역혁신, 창업·직업·평생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체계

- (인력난 해소) 서비스 박람회* 등 개최 시, 취업 부스를 신설하여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 퇴직자 등 대상 홍보 산업부 등

* '서비스산업특별전('25.6.26~'25.6.28, 서울 마곡 컨벤션센터, 300부스 규모) 등

[2] 서비스 R&D 고도화

◇ 「서비스 R&D 가이드라인」 개선, 기술기반 **新서비스 혁신** 유도

□ 「서비스 R&D 가이드라인」 개선을 통한 **이해도·활용도 제고**

- **(체크리스트 개선)** 서비스 R&D 인정기준, 세제지원 가능여부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·예시 보완(~'24.12월) **과기·기재부**
- **(사례 보완)** 정부지원 수요기업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**한국표준 산업분류**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R&D 사례 재구조화* **과기·기재부**

* (現) 관광·유통·보건 등 일부 주요 업종 → (改) 전체 서비스산업 포괄

□ **기술기반 新서비스 혁신을 위한 민간 서비스 R&D 투자 촉진**

- **(지원수요 조사)** 산업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(AI, 클라우드 등) 분야 대상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실시('25년) **전부처**

[참고] '25년 서비스 연구개발 주요사업 추진방향(안)

- ① **첨단 바이오, 의료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고도화**
* (첨단 바이오) 마이데이터, 디지털치료제 등 / (의료) AI기반 솔루션, 비대면 진료용 의료기기 개발 등
- ② **물류·교통, ICT·SW, 공공서비스 등 분야의 서비스 신산업 육성**
* (물류·교통) 드론-로봇연계 배송,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운송 등 / (ICT·SW) AI 기반 지식서비스, 지능형 문화콘텐츠 제작 등 / (공공서비스)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, 재난 감시용 드론 등

- **(기술혁신 지원)** 중소기업의 **新서비스 창출** 등을 촉진하기 위해 ICT 활용 솔루션 구축* 등 기술혁신 지원 **중기부**
* 예) 중소 서비스기업의 新서비스 창출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AI·빅데이터 등 첨단 ICT 활용 솔루션 구축 지원(총사업비의 50% 지원, 신규 5천만원/고도화 1억원 한도)
- **(기업 R&D 지원 강화)**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체계적 R&D 지원을 위한 근거법률* 마련 추진 **과기부**

*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 발의('24.5월)

IV. 향후 추진일정

정책 과제	추진시기	부처·기관
1. 서비스 新산업 육성		
▶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기업의 도약 프로그램 참여 지원	'25.	중기부
▶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 반영 검토	~'25.1/4	금융위
▶ 의료·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세부기준(시행령, 고시) 마련	~'24.12	개보위
▶ 기업정보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·실증	'25.	과기부
▶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비대면 진료 서비스 지원 실증	'24.12~	과기·복지부
▶ 국가 데이터 인프라(One-윈도우) 구축	'25.~	과기부
▶ 표준 데이터 카탈로그 정의·배포	'25.~	과기부
▶ 자율주행 서비스 다변화(단거리·여객→장거리·화물)	'24.下~	국토부
▶ K-City 3단계 고도화	~'25.	국토부
▶ UAM 수도권 실증(인프라 구축 후 실증비행)	'24.12~	국토부
▶ UAM 시범사업 지자체 사전준비 지원('25년 2개소)	'25.	국토부
▶ UAM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 구체화	~'24.12	국토부
▶ 서비스 新산업 분야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 발굴·추진	'25.~	국조실 등
▶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·운영	법 제정시	기재부
2.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육성		
▶ K-방산 MRO 육성계획 수립	~'25.12	방사청, 국방부
▶ 원전 정비, 유지보수 등 원전 서비스 수출 지원	계속	산업부
▶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	'24.11	해수부
▶ 친환경 선박 수리·개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	계속	산업부
▶ 고부가 항공정비산업 성장촉진 지원	'24.下~	국토부
▶ 제조기업 디지털·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	'25.	산업·중기부
▶ 제조과정 전·후방 과정에 서비스 투입 확대	'25.	산업·중기부 등
▶ 소프트웨어 융합 디지털 서비스(XaaS) 기획·개발 지원	'25.	과기부
▶ 기술보증기금 내 M&A 종합플랫폼 구성	'25.上~	중기부
▶ 생체정보 안전한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	'25.上	개보위
▶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특별법 제정 추진	'25.上~	개보위
▶ 자기적합선언 제품 인증대상 품목 확대	'25.下	산업부
3. 서비스업 규모화·표준화 지원		
▶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등 건축규제 합리화	~'25.	교육·문체부
▶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확대 위해 향후 5년간 2.5조원 규모 우대금융 제공	'25.~'29.	금융위

▶ 농어촌민박·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	'24.12~	문체부
▶ 「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」 마련	~'25.下	기재·문체· 복지·농식품부
▶ 요양시설 공급부족 지역 등의 설치기준 개선 검토	'25.	복지부
▶ 요양시설 신규서비스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 검토	'25.	복지부
▶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규칙 개정)	~'24.12	복지부
▶ 사회서비스 표준 공유화 모델 개발('24년)·확산('25년~)	'24.~	복지부
▶ 지역사회서비스 가격 탄력제 시범운용(24년)확산 검토(25년~)	'24.~	복지부
▶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성장 지원방안 마련	'25.	복지부
▶ 중소형 렌터카 업체 간 공동운수협정 활성화	계속	국토부
▶ 외식 브랜드 현지 수출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연계 확대	'25.	농식품·산업부

4.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

▶ 서비스 분야 향후 5년간 66조원 수출금융 지원	'25.~'29.	기재·산업·중기부 금융위
▶ 수출바우처 내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트랙 신설	'25.	중기부
▶ 잠재적 바이어 대상 현지실증 지원 메뉴 신규 개발	'25.	산업부
▶ 현지 AC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확대	'25.上	중기부
▶ 바이코리아 내 서비스 전용관 별도 페이지 구축	~'25.上	산업부
▶ MDB(다자개발은행) 조달설명회 개최	'24.11	기재부
▶ MDB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	'25.	기재부
▶ 그린 ODA 연계 국내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	'25.	환경부
▶ KSP 활용 산후조리 서비스 수출 지식공유 추진	~'26.上	기재부
▶ ODA 연계 개도국의 K-에듀테크 도입 지원	'24.~	교육부
▶ 「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」 관련 국가·산업별 교역환경 개선효과 사례조사 실시	~'25.上	산업부
▶ MEGA TBT 포럼에 유망서비스 분야 추가	'25.	산업부

5.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·고도화

▶ 한국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직업훈련 확대	'25.	고용부
▶ 전공자울선택제 현장 안착 지속 추진	계속	교육부
▶ RISE 내 서비스산업 분야 교육과정 운영 자문·지원	'24.12~	지자체, 교육부
▶ 서비스 R&D 체크리스트 설명·예시 보완	~'24.12	과기·기재부
▶ 서비스 R&D 가이드라인 사례 보완	~'24.12	과기·기재부
▶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실시	'25.	전부처
▶ 중소기업 대상 新서비스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ICT 활용 솔루션 구축 지원 등 기술혁신 지원	계속	중기부
▶ 기업부설연구소 R&D 지원 근거법률 마련 추진	계속	과기부